



임무영 목사의 고요한 아침의 편지

“주님만 보이는 축복”

오즘처럼 SNS가 활발하게 사용했던 시대가 없었으면 내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증명하는 수단이 많습디다. 어디 SNS뿐입니까? 우리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개발된 App만 보더라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디다. 은행업무, 행정업무, 그리고 학교업무 등등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일들을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디다. 그런데 가끔 SNS에서 또는 설치한 App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차원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디다. 바로 “기간이 지났으므로 ID와 Password를 다시 설정해서 넣어주세요” 또는 은행 업무같은 경우는 매번 사이트나 앱에 접속을 할 때면 비번을 물어보곤 합디다. 그러다보면 너무나 많은 앱과 사이트에 각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아서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디다. 분명히 이 사이트에 이 아이디와 비번이 맞는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돌아오는 메세지는 “Your password is invalid. Please try again” 몇번 시도해도다가 동일한 메세지가 뜨면 이제는 화가나고 답답할 때가 있습디다. “아니! 내가 나인데. 왜 자꾸 나를 증명하라고 하는지...” 언젠가는 페이스북 제 계정을 다른 사람이 해킹해서 들어온 적이 있습디다. 그러면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증명해야 합디다.

PR시대라고 하죠.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대, 좋은 겁니다.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함으로 인해 나의 장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왠지 모르게 꺼림직한 부분이 있습디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 이 믿음의 공식이 혹시나 깨지지 않는을까하는 걱정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혹독하게 비판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글르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6:1). 이어지는 말씀에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 등등의 말씀맥락을 보더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디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와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않습디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뭇 사람에게 잘 보이고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것 아닌가요? 남들은 다 칼 퇴근 하는데 오버타임 비용도 받지 않으면서 늦게까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합디다.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구제, 금식, 기도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자들이었습디다. 부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디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기도하고 왜 내가 금식하고, 왜 내가 구제를 해야 하는지?” 동기를 건드립디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디다. 세상사람들과 믿는 우리들과 말입디다.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상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디다. 노력합디다.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기업과 회사와 상사를 위해 일합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디다. 이유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 땅에서 받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 할 것이 없기 때문입디다. 동기가 무엇인가?

왜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왜 어려운데 불구하고 헌금도 하시고 선교사 후원 약정까지 하셨나요?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왜 헌신하고 늦게까지 봉사하느라 교회에 남아계시나요? 기억했으면 합디다. “To be seen by man, if you do, you will have no reward from your Father in Heaven”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이 마음... 소망하기는 우리 브릿지 성도들의 신앙이 이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디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량이 잔잔하니(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디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만 보이도다” 소망하기는 타인을 위한 구제와 봉사, 헌신과 예배, 그리고 섬김...이 모든 것들이 시간 지나 다시 생각해 볼 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디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일로 인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디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브릿지교회



세상을  
그리스도  
께로  
연결하는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Janice Kim  
유/초등부: Mike Brick, Tara Der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el: 260-602-9061

www.chicagobridgechurch.org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목사

사도신경.....다같이

여는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조정자 권사

헌금 찬양.....다같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 310)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룻기 2장 5-13절  
(Ruth 2:5-13)

설교.....임무영 목사  
<룻기설교 시리즈 5>  
“은혜, 더 낮은 곳으로”  
(Let God's grace flow the lower place)

\* 설교후 찬양.....다같이  
“아름다우신(내 안에 주를 향한)”

\* 축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영: 시카고 브릿지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공지사항
  - a. 7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b. 브릿지 교회 요람 및 7월달 생명의 삶 Pick up (문의: 안내팀 및 위경미)
  - c. 선교사 후원에 따른 개인별 선교 현금 봉투를 로비에서 pick up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7-8월 동안은 노타이 (No-Tie)로 지냅니다.
  - e. 2022년 하반기 성경통독표 Pick up
  - f. 마스크 착용 optional choice: 7/18(주일)부터
  - g.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오픈: www.chicagobridgechurch.org
  - h. 온라인 현금 안내: Zelle 이용 (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예배및 훈련
  - a. 토요새벽예배 : 7/16(토) 6am, 현장및 Zoom
  - b. 1부예배: 10:30am / 소예배실
4. 2022 시카고 브릿지 교회 VBS 안내
  - a. 기간: 7/18(월)-21(목) 9am-2pm
  - b. 장소: 시카고 브릿지 교회 본당

\*VBS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2022 VBS를 위한 기도회
  - a. 기간: 7/11(월)-14(목) 8pm
  - b. 대상: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 (Zoom)
6. 확대운영위원회 모임
  - a. 일시: 7/15(금) 8pm
  - b. 대상: 운영위원및 팀장 (Zoom Meeting)
  - c. 내용: VBS 및 하반기 교회행사 일정 안내, 기도회
7. 예배 및 봉사위원
  - a. 친교: 윤재영 / 다음주: 박선옥, 김귀숙
  - b. 다음 주 기도: 김정미
  - c. 7월 안내및 헌금위원: 이혜린, 송재우(헌금) / 김정미, 박재홍(안내)
8. 축결혼: 박철수 장로 차남 (Kenneth Park & Esther Lee, 7/16/2022, Laguna Hill, CA)
9. 기도제목
  - a. 2022 VBS를 위해서 (자녀들 믿음, 안전, 도움의 손길)
  - b.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위해
  - c.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전성민, 이복희, 김창걸, 고지은, 박양자)
  - d. 선교사님들 사역 (인도네시아: 샤론학교,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 멕시코: 최희영 선교사, 미얀마: 리안목사, 실버선교)
  - e.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팀장및 사랑방 리더자들 (방지기, 부방지기)을 위해
10. 지난 주 출석: 어른(83), 다음세대(19)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소예배실	
주일예배 2부	12:00 pm	본 당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 아 부	12:00 pm	Nursery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동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